

서평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에 부쳐

의미를 낚는 자는 복이 있나니...

I.

누구든지 문학의 바다에 뛰어드는 자는 『문학개론』 입문에서 장르론(Genre)이라는 신기한 조류를 만나게 된다. 때로는 따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디차기도 한 이 물결은 온갖 신비스런 물고기를 몰고 다닌다. 장르는 글쓴이가 의미를 찾아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물결을 쫓아가는지 그 궤적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문학 개념 사전에서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용어는 문학적 상상력이 얼마나 다양한 변용으로 꽃피우는 게 가능한지 말 해준다. 장르를 이해하면 글감이나 뜻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고 해석의 갈등, 의미의 혼란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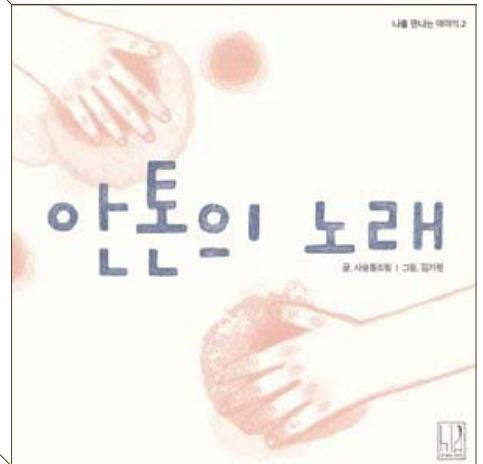
장르는 작품을 구성하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하는데 보통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아동문학 등으로 나뉘어진다(여기서 장르에 속하는 여섯 개 분야를 덧붙여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다만 장르라는 개념에는 작가의 글쓰기 비밀, 의미를 구성하는 묘수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II.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 두 권이 도착했다. 서평 청탁과 함께. 그런데 책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볼륨이라고 해야 삼십 쪽 안팎이다. 짧은 동화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두 이야기는 호흡은 짧지만 여운이 깊다. 여운이 깊으니 의미가 새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부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롭지 않을 수 없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정관념, 선입견과 같은 고질병에게 날카로운 수술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말이 수술칼이어서 날카롭다는 표현을 썼지만 오히려 관점에 따라서는 그 여운은 따스한, 포근한, 마치 엄마품 같은 향기를 풍긴다. 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가 유행하는 요즘에 이런 동화는 지친 영혼에게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머금을 것 같은 감동을 풍긴다.

동화라는 장르는 영동한 발상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음이 사실이다. 기괴한 상상력이 가미되어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허풍스런 상상력에 이야기가 바다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가상의 스토리 속에 현실에서는 지나치기 쉬운 의미를 낚아채는 역전(逆戰), 역설(逆說)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에서 의미를 뒤집어엮는 패러독스의 진실이 숨어 있다.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에 그런 역설이 숨겨져 있다. 동화는 그래서 어린애처럼 유치한 이야기같아 보인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서 말씀을 빗댄다면, 유치한 아이들의 이야기 같은 동화 속에 사실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을 줄이야. 동화가 유치하지 않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피오렌자는 자기 곁에 아무도 없음에 상처를 받았다. 하찮아 보이는 자신의 그림자만 졸졸 따라다닐 뿐. 오히려 다른 이들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지 않았다. 그러다 지친 피오렌자. 어느날 그녀에게 친구가 나타났다. 그 친구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였다. 피오렌자는 그 순간 자기의 자아를 만난 것이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하는 천국문을 열게 된 것이다.

안톤은 이상한 병에 시달렸다.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그의 몸에 구멍이 생겼다. 아픔 하나에 구멍 하나. 아픔 둘에 구멍 둘... 이렇게 아픔이 많아지면서 안톤의 몸에 구멍이 많이 생겨났다. 그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죽음을 부르는 소리라며 무서워했다. 안톤은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받아 홀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 외로운 날들에 바람이 불면 그는 그 구멍을 막느라 힘겨워했다. 그런데 안톤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다. 일곱 개의 구멍을 막느라 정신 없는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의

구멍에서 울리는 소리,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치유하는 생명의 음악이었다. 상처투성이 안톤은 몸에 구멍을 안고 살아야 했던 자아와 타자 모두에게 천대받던 아웃사이드였는데, 그 구멍으로 인해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약사가 되었다. 안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타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적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통해 이웃이 회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희생의 나무에 올라간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 안톤의 구멍은 거의 십자가의 알레고리라 하겠다.

『피오렌자의 그림자』, 『안톤의 노래』는 긴 이야기를 사절한다. 긴 이야기의 낭패는 작가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기 속내를 많이 말한다는 것이다. 독자에게 모든 것을 말기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의미의 힘을 믿고 있다. 독자가 언젠가 그 의미를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작가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보낸다. ‘독자님이 이 이야기 속에 풍덩 빠지면 언젠가 자신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하고 응원하는 것 같다. 작가는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슴통조림’이라 불리기를 바란다.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읽고 느껴야 한다. 작품은 작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작가와 이별한다. 일명 작가의 죽음이다. 해석에 작가의 아우라를 전제하지 말라는 선언이다. 사슴통조림은 그래서 그냥 희안한 작가의 필명 사슴통조림일 뿐이다. 다만 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말이 언뜻 보인다. 책 한 권에 이런 문구가 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워크샵으로 정체성과 소명을 찾는 이름을 찾는 만남” 『안톤의 노래』에는 각별히 “나를 만나는 이야기”라고 각인되어 있다. 두 개의 동화는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짧다고 무시하거나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동화는 끝나지 않는다. 동화 속 이야기는 독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 미완의 이야기이다. 작가가 사슴꼬리만큼 짧은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기획한 의도가 그렇게 숨겨져 있다. 동화를 읽고 독자 자신이 자아를 부동켜안고 울던지 웃던지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지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 작가는 단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님이 이 부디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III.

V. 프랭클(Victor Frankle)은 의미요법(Logotherapy)을 발견한 심리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유대인인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강제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 박해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미국에 안착하기까지 그가 겪었던 실존에의 공포감은 상상을 뛰어넘는다(참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치료』 등). 실제로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프랭클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용감하게’ 자살하지 않고, ‘비겁하게’ 자살을 포기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미(意味, the meaning)였다. 그 의미가 유치한 것이든 비범한 것이든 가족을 위한 것이든 아주 이기적인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무슨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면에 그 어떤 의미가 각인된 이는 결코 자살을 감행하지 않았다. 프랭클은 여기서 의미에 몰두한다. 의미가 실존을 엮어 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생(生)에의 용기, 내일에 대한 희망, 실존에의 추진동력은 다름 아닌 의미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두 동화를 펴낸 “사슴통조림”도 같은 부류의 작가일 것이다. 프랭클처럼 그도 의미에 꽂힌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를 통해 의미 바리새를 세상에 잔잔히 퍼뜨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게 하려는 홍익인간형 의미전도사일 것이다. 모르고 해도 그가 추구하는 “이름 찾는 캠프”라는 곳은 각종 의미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혈값에 분양해 주는 이타적 기관일 것이다. 어쩌면 이런 별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사슴통조림 같으니라구..’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복된 삶을 누리세요”가 되지 않을까. “행복을 찾아서”, “모모를 찾아서” 해서 이만리로 떠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곳에서 의미를 만날 수 있다면 행복은 그저 따라오리라.

IV.

세상은, 아니 넓디넓은 이 우주는 의미로 충만해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실 때 인격적인 부분도 함께 혼재하게 하셨다. 인간이 만나는 것 중 무의미한 것은 없다. 우주가 진공으로 가득 차 있듯 온 세상은 의미로 충만해 있다. 문제는 그 의미를 만나느냐 지나쳐 버리느냐에 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시 19:2,3) 의미는 유동적이다. 때로 느리게 때로 번개처럼 사람을 지나친다. 촉(觸) 없이 의미를 낚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때문에 면벽구년(面壁九年)이라는 말도 생겼다. 대선사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 구년 동안 벽을 향해 용맹정진한 고사에 기인한다. 불가에서는 화두 하나 풀면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성불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투신한다. 하나의 의미를 풀기 위해 출가하고 세상을 방랑하고 몸과 영혼을 던지기도 한다. 그만큼 의미는 신비하다. 의미 하나 풀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인생이 의미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의미가 인생을 만든다. 만들어진 의미도 있으며 주어진 의미도 존재한다. 그래서 “신적 의미”(The Divine Meaning), 진정한 의미, 거룩한 의미, 생명의 의미를 만나는

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는 존재한다. 그러기에 “그 의미”(The meaning)를 찾아 종교에 귀의하기도 한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한 편의 동화를 쓰고 읽는 과정은 망망한大海에 그물을 드리우고 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의 행위가 아닐까 상상해 본다. 그리하여 동화를 둘러싼 독서 행위는 드넓은 바다에서 의미를 거두어 올리는 지난하고도 행복한 작업이리라. 망망한大海에는 조류를 따라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의미의 물고기들이 충만하며 거기에 의미의 그물을 던져 의미를 건져 올릴 때 삶의 의미가 새로우리라. 동화라는 장르에는 동화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으며, 그들 모두모두, 나아가 글 읽는 독자 모두는 의미의 그물을 던져 일백선 세 마리 넉넉한 의미를 거두어 올리고 그 의미를 이웃들과 함께 이리저리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튀겨 먹는 의미의 셰프들이요, 의미의 어부들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의미들의 의미, 의미들의 “바로 그 의미”(Just The meaning of meanings), 셋째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그 신적 의미”를 낚는 자는 복되리라. 

※ 본 서적은 일반 시중이 아닌 온라인 판매만 가능합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소명교육개발원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소명교육개발원 <http://www.cedi.or.kr/default/00/01.php>